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테이지

한국화 된 독일 뮤지컬 ‘로빈훗’ 천하를 주름잡았던 영웅 맞아?



뮤지컬 로빈훗은 한국 관객의 입맛에 맞춘 독일 뮤지컬이다. 영국의 서민영웅 이야기를 귀에 쏙쏙 박히는 음악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곳곳의 웃음코드로 풀었다. 왕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체포된 로빈훗을 연기하고 있는 엄기준. 사진제공 | 엠뮤지컬아트

뮤지컬 로빈훗은 뭐랄까, 지극히 ‘한국화’된 독일 뮤지컬이다. 여기서 ‘한국화’라는 것은 한국 전통문화와의 융합, 삽입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 관객의 입맛에 맞추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로빈훗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처럼 범세계적 영웅으로 익숙한 인물이다. 12세기 영국의 서민영웅으로 왕을 살해한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서우드 숲에서 산적들의 두목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리처드왕의 아들 필립 왕세자를 옹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

운다. 인생 스토리는 사뭇 다르지만, 서민들의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임궫정이나 홍길동과 비슷하다.

‘삼총사’, ‘잭더리퍼’ 등 외국 뮤지컬을 들여와 ‘한국화’시키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엠뮤지컬아트의 작품이다. 숲을 표현하기 위해 깊이를 강조한 무대가 인상적이었다. 유럽뮤지컬답게 음악도 나쁘지 않다.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뮤지컬이지만 음악은 고전적이지 않다. 캐스팅도 호화롭기만 하다. 유준상, 이진명, 엄기준이 로빈훗을 맡았고, 아이돌스타 규현(슈퍼주니어),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필립 왕세자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화’를 위해 강조한 듯한 곳곳의 개그코드가 양날의 칼이 되었다. 배우들의 개그는 어김없이 관객을 폭소하게 만들지만, 왕왕 스토리의 흐름을 끊었다. 웃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싶어 씁쓸하기도 했다.

사랑(로빈훗)과 돈(길버트)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인 마리아의 정체성은 모호했다. ‘방황’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 중독돼 옛 연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녀로만 보였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가 탈출하고(마리아가 유일하게 로빈훗을 돕는 장면이다), 산적두목이 되어 고군분투하는 데다 연인에게마저 괴롭힘을 당하는 로빈훗에게 연민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나저나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한때 천하를 주름잡았던 영웅이 토기 밧이랴니,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홍길동’의 최후가 이런 식이라면 조금 아연할 것 같다.

ranbi@donga.com

노스페이스 트레이닝 기어 출시 스판 소재 ‘이케이 2 재킷·팬츠’ 신축성 극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 및 스포츠 트레이닝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노스페이스 트레이닝 기어’를 새롭게 출시했다.

터치감과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고 스포티한 절개로 편안하면서도 활동성이 뛰어난 고기능성 퍼포먼스 웨어다.

대표제품인 노스페이스 ‘이케이 2 재킷(11만원·사진)’과 ‘이케이 2 팬츠(9만원)’는 신축성, 흡습·속건 기능이 탁월한 스판 소재를 적용해 활동성과 쾌적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케이 2 재킷은 간결하면서도 스포티한 절개와 배색의 포인트로 역동적인 느낌이 돋보인다. 여성용 재킷은 후드 일체형으로 캐주얼한 분위기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팬츠는 하반신 전체에 피트되면서도 각부의 움직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자유로운 활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대표 제품인 노스페이스 ‘트랙 재킷(12만5000원)’과 ‘트랙 팬츠(10만8000원)’는 신축성이 탁월한 스트레치 원단을 적용해 고강도 훈련 시에도 자유로운 활동감을 부여한다.

양형모 기자

더가젯,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공모전



발굴하는 한때 수상작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컨설팅과 제품 양산은 물론 유통까지 지원하는 신 개념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 디자인공모전의 주제는 ‘스마트 센스, 스마트 디자인(Smart Things, Smart Design)’. 실제 제품으로 출시가 가능한 IT기기, 액세서리와 아이디어가 숨쉬는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 디자인이다.

수상작 특전이 풍성하다. 상금(대상·최우수상·우수상) 시상, 제품제작 지원과 함께 아이디어 제공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전국 롯데백화점 더가젯 매장 및 온라인에서 실제 판매까지 지원한다. 공모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5월 22일. 참가신청은 더가젯 홈페이지(www.thegadget.co.kr)에서 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르노삼성 QM3 ‘RE 시그니처’ 모델은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림 컨트롤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 더욱 감각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다. 실내에도 레드 데코와 전용 천연가죽 시트를 적용해 고급감을 더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

QM3의 진화...실용성·디자인 급이 다르다

르노삼성 ‘QM3 RE 시그니처’

투톤 컬러·데칼 데코레이션 디자인 눈길 탈착식 지퍼형 시트·트렁크 공간 455L 연비 18.5km/L·2000만원 초반대 매력

실용성에 프리미엄을 더한 ‘QM3 RE 시그니처’.

아웃도어 및 캠핑 열풍으로 시작된 SUV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대형 SUV 보다도 도심과 아웃도어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콤팩트 SUV 및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주자는 르노삼성의 QM3다. QM3는 본래 르노 그룹에서 ‘캡처(Captur)’라는 이름으로 2013년 3월 유럽에서 먼저 선보인 모델이다. 캡처는 2014년에만 전 세계에서 총 17만7305대가 판매되는 등 글로벌 소형 크로스오버 분야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연비를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한 발 앞서 파악한 덕분에 르노는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한국에서도 QM3의 인기는 이어졌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3년 12월 캡처를 수입해 QM3라는 이름을 붙여 르노삼성의 5번째 정

●르노삼성 QM3 주요 제원

엔진형식	1.5 dCi 터보 디젤
배기량	1461cc
최고출력	90마력(4000rpm)
최대토크	22.4kg.m(2000rpm)
연비	복합 18.5km/L (도심 : 17.0km/L , 고속도로 : 20.6km/L)
가격	2280만~2570만원



규 라인업 제품으로 출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처음에는 완성차업체가 수입차를 판매하는 것이 관행을 벗어난 우려했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출시 후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2만2천대 가량의 판매를 올리며 르노삼성자동차의 내수시장 부활을 이끌어낸 QM3를 두고 일각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한다.

QM3는 수입차를 능가하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 1.5 디젤엔진과 독일 게트락의 파워시프트 DCT(듀얼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이 만들어낸 뛰어난 복합연비(18.5km/L), 합리적인 가격(2280만~2570만원)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차체와 루프의 색상이 다른 투톤 컬러와 데칼 데코레이션을 통해 젊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유행파인 디자인을 표현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성 표현이 가능하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QM3는 소형 SUV지만 운전석에서 좁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다. 키 180cm 가량의 성인 남성이 여윌듯게 운전할 만하다. 적재 공간도 충분하다. QM3는 뒷좌석이 슬라이딩 시트로 이뤄져 있다. 뒷좌석을 앞좌석 쪽으로 최대한 당겨놓으면 트렁크 적재 공간이 377리터에서 455리터로 늘어난다. 또 실내에는 서랍 형태의 매직 드로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퍼로 간단히 분리해 쉽게 세탁이 가능한 탈착식 지퍼형 시트로 독특함과 실용성을 더했다.

●더 감각적인 ‘QM3 RE 시그니처’

르노삼성에서는 QM3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1일 신규 컬러 및 내외장 편의사항

으로 업그레이드 한 최상위 트림 QM3 RE 시그니처(2570만원)를 선보였다. 르노삼성에서는 QM3의 높은 실용성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보다 고급화된 모델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의 3개 트림(SE, LE, RE)에 최상위 트림 ‘RE 시그니처’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QM3 RE 시그니처는 그림 컨트롤(Grip Control)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실용적 연비에 더해 주행의 즐거움을 향상시켰다. 그림 컨트롤은 다양한 노면환경(눈, 진흙, 모래 등)에서 최상의 그림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센터 콘솔에 위치한 그림 컨트롤의 3가지 모드(로드, 스포츠, 그라운드, 익스퍼트)중 하나를 선택해 주행할 수 있다.

컬러도 추가했다. QM3 RE 시그니처는 전용 컬러인 소닉 레드 바디와 블랙 루프의 조합을 통해 강렬함을 추가했다. 실내에도 레드 데코와 전용 천연가죽 시트를 적용해 보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RE 시그니처를 통해 젊고 역동적인 QM3 고객이 도심에서의 세련된 주행과 더불어 야외 활동 시 오프로드에 적합한 다이내믹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류마티스관절염, AIR 한방치료로 면역 회복

면역력이 강해야 내몸이 건강하다

관절부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단순히 관절염으로 생각하고 관절치료만 한다. 하지만 류마티스관절염은 신체 면역

계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치료와 함께 면역력을 길러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비가역적 관절손상이나 만성통증, 그리고 강직과 기능성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 질환의 근본 원인은 관절 이상이 아닌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절 치료로는 호전되지 않고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야 증상이 호전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남성보다는 30~5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왜 그럴까?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 폐경이 찾아오고 이 시기에 여성호르몬의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류마티스관절염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나, 세균 바이러스감염,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으로 꼽힌다. 이 질환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90%가량이 발병 2년 내에 관절 손상을 입기 때문에 초기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역력을 정상화 시켜주는 한방치료 AIR프로그래밍치료

대표적인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할까? 이지스한의원에서 면역계를 바로 잡아 주는 한방치료인 AIR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한방치료인 이지스한의원의 AIR프로그래밍은 개인 체질과 증상에 맞춘 면역탕약, 화수음양단, 진수고, 면역약침, 왕뜸치료 등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맞춤 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과정은 우선 면역탕약으로 신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체계의 정상화를 돕는 화수음양단과 진수고를 함께 복용하게 된다. 이후에는 인체의 경혈자리에 약물을 주입하고 정제하여 주입하는 면역약침요법으로 염증반응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세포의 재생을 활성화시켜 각종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게 하는 왕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면역질환 치료인 AIR프로그램은 눈에 보이는 증상치료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약물요법과 달리 증상호전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뛰어나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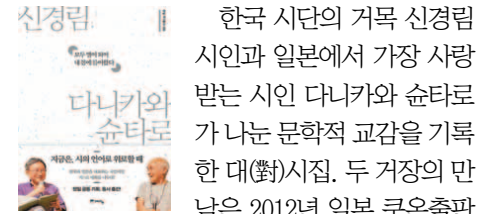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면역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지스한의원의 한방치료인 AIR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지스한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지스한의원 인천점 나세중 원장

한·일 시단 두 거장의 만남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

(신경림·다니카와 순타로 저 | 위즈덤하우스)



한국 시단의 거목 신경림 시인과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가 나눈 문학적 교감을 기록한 대(對)시집. 두 거장의 만남은 2012년 일본 쿄운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한 신경림의 시집 ‘낙타’ 출간기념회에 다니카와 순타로를 초청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행된 대담,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이메일로 오고 간 대시(對詩)를 중심으로 이뤄진 두 시인의 교류는 유쾌하면서도 밀도 있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쓰는 시가 ‘연시’라면 ‘대시’는 둘이 주고받는 시다. 아이디어는 일본의 전통적인 시 창작 기법에서 나왔다. 관념적인 언어를 즐기지 않는 두 시인의 성향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졌다. 조선백자 향아리에서 시작된 이들의 대화는 삶과 시대적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계속된다.

양형모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